

CONTENTS

Intro. 서문/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	003P
1 고전시를 공부하는 태도(유원십이곡 독해)	004P
2 고전시가 읽는 법	008P
3 필수 고전시가 독해 연습	013P
I. 자연	
1. 「관동별곡」, 정철	014P
2. 「강호사시가」, 맹사성	042P
3. 「만흥」, 윤선도	045P
4. 「상춘곡」, 정극인	049P
5. 「오우가」, 윤선도	056P
6. 「누항사」, 박인로	060P
II. 이별	
7. 「규원가」, 허난설헌	074P
8. 「어이 못 오던다～」	082P
9. 「사미인곡」, 정철	083P
10. 「속미인곡」, 정철	093P
11, 12. 「임이 오마 하거늘～」 / 「벽사창이 어룬어룬커늘～」	101P
III. 윤리	
13. 「도산십이곡」, 이황	106P
14. 「오륜가」, 주세붕	113P
IV. 고대 가요	
15. 「공무도하가」	118P
16. 「황조가」	121P
V. 고려 가요	
17. 「동동」	126P
18. 「가시리」	133P
19. 「청산별곡」	136P
20. 「서경별곡」	140P
교재를 마무리한 후	144P

Intro. 서문

이 교재에 들어갈 「속미인곡」 해설을 쓰던 중, 문득 고등학교 때 이 작품을 공부했던 기억이 나서 책장에 꽂힌 문학 교과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불러 주신 「속미인곡」 해석을 뼈뼉뼉한 글씨로 받아쓰고, 모르는 단어에는 물음표를 엄청 그려놨더라고요. 구석에는 낙서와 욕설도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무렵 가장 짜증났던 공부는 단연 고전시가였던 것 같습니다. 전문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고, 단어 하나하나 외우려니 막막하기만 했었죠.

대학에 들어가고, 수능과 관련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어느덧 수많은 고전시가들을 거의 외우는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몇 학년도 수능에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각 작품에 무슨 문제가 나왔고 답은 무엇이었는데도 외울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시가는 여전히 저에게 답답한 영역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종용하게 되고, 재미도 없는 글자 덩어리들에 익숙해질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고전시가 강의를 듣고, 이 교재를 집필하며 저 스스로 고전시가의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고전시가는 정해져 있는 해석을 단순히 암기해야 하는 영역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의 구절에도 다양한 해석을 하는 논문들을 비교하며 재미를 느꼈고, 각 작품을 보면서 전에 봤던 다른 작품과 비슷한 구절,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찾을 때 희열을 느꼈습니다.

최근의 수능 고전시가 역시 암기를 강요한다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독서처럼 논리적인 독해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죠. 2022학년도 예시문항에서는 한 작품의 이본(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나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버전)들을 보여주며 제시문을 바탕으로 정보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고,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만흥」에서는 EBS를 아무리 암기했다라도 각 표현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맞힐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수능에서 고전시가 문제를 다 맞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뛰어난 독해력과 타당한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최대한 암기의 양을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최근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고, 출제되더라도 제시문을 통해 개념을 알려줬던 3·4조, 4음보 따위의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한자어나 사자성어의 경우, 정말 빈출되는 표현이 아닌 이상 가급적 맥락을 통해 뜻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외워야 할 단어, 외우지 않아도 될 단어를 골라내느라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논리적인 독해와 추론을 요구하는 현재의 수능 트렌드상, 어쩌면 문제를 맞히는 데에는 고전시가 자체에 대한 공부보다 문제를 푸는 연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다면 고전시가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는 **고전시가를 읽는 태도와 방법**을 가르치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언제 수능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작품들의 해설**을 담아두었습니다. 정말 힘겨운 공부라는 것은 알지만, 이 책을 완독한 뒤에 「P.I.R.A.M 생각의 전개 문항 편」 등의 기출 분석서를 학습하신다면 수능날 고전시가를 읽고 푸는 것에 무리가 없으리라고 자신합니다. 100쪽 중반의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위한 작은 벽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고전시가를 공부하는 태도(유원십이곡 독해)

2020.06 [32~36]

문장(文章)을 흐자 하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공맹(孔孟)을 비호려 하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이로다

이 내 몸 쓸 디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홍진(紅塵)에 절교(絶交)하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하야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름 업시 늘거 가니
이 등의 무한지락(無限至樂)을 헌스 할가 두려워라
<제3장>

인간(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는 알기 슬히여라
물외(物外)에 벗 업단 말가 나는 알기 즐거워라
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흐노라
<제6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홀 슌 아마도 풍진(風塵) 봉우(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홀 슌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鷗鷺)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을 썬드 룬가 흐노라
<제8장>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홀 제와 태부(太傅) 걸해귀(乞骸歸)*홀 제

호연(浩然) 행색(行色)을 닐 아니 부러 흐리
알고도 부지지(不知止)*하니 나도 몰나 흐노라
<제9장>

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하니 므스 일 머므 뇨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하니 므스 일 아니 가리
이제는 가려 정(定)하니 일흥(逸興) 계워 흐노라

<제11장>

-안서우, 「유원십이곡」-

* 인생식자 우환시: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도약등천 불가급: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 성대농포: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작비금시: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 도팽택 기관거: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 태부 걸해귀: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함.

* 부지지: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보기]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윗글은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유원십이곡」과 <보기>입니다. 당시 오답률 top 10에 들었던 두 문제가 이 작품에서 출제되었죠.

만약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작품을 읽는다면, 거의 외계어로 이루어진 글자 조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독해를 해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체크해보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 「유원십이곡」을 제대로 독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고전시가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장(文章)을 ㅎ자 ㅎ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 문장을 하고자 하였으나(글 공부를 하려 하였으나) 글 공부를 하면 근심이 늘고

공맹(孔孟)을 비호려 ㅎ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이로다

→ 공자와 맹자를 배우려 하였으나 그들의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내가 배우기엔 어렵다.

이 내 몸 쓸 티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 이 나의 몸을 쓸 데가 없으니 농사나 짓자.

<제1장>

* 인생식자 우환시: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도약등천 불가급: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렵음.

* 성대농포: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제1장>에는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전부 밑에서 뜻을 주고 있죠. '문장을 한다'는 표현을 '공부한다'라는 표현으로 넘겨짚는 것 정도가 자연스러운 독해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 못해도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이해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래의 해석에서도, 고전시가를 읽는 데 엄청 대단한 어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편 '공맹'은 공자와 맹자를 일컫는 단어로, 고전시가에서는 당시의 유교적 가치를 공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세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을 모시기 위해서겠죠. 지금 화자는 이런 '공부-과거급제-임금모심'이라는 속세의 가치를 포기하고 자연(강호)에서 농사나 짓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뒤에서도 꼭 속세vs자연의 대립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구조는 수많은 고전시가에 등장하므로 배경지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홍진(紅塵)에 절교(絶交) ㅎ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 ㅎ야

→ 속세와 절교하고 자연과 친구가 되어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름 업시 늘거 가니

→ 푸른 물과 산에서 시름 없이 늘어 가니

이 등의 무한지락(無限至樂)을 현스홀가 두려워라

→ 이 중의 무한한 즐거움을 현사할까봐(?) 두려워라.

<제3장>

처음 읽었을 때 잘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홍진'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홍진'은 속세를 뜻하는 단어이며, 이 정도 어휘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어휘는 이 교재의 단어 파트에서 다룰 단어들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런 홍진(속세)과 절교를 한다고 합니다. '절교'라는 단어는 다들 아실 겁니다. '더이상 친구 안 해!'할 때 그 절교가 맞습니다. '홍진에 절교하고'를 '속세와 절교하고'로 해석했다면, 그 뒤의 어구는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백운'은 하얀 구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시에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전시가에서 이런 자연물을 언급했다면 그냥 '자연(강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홍진'의 반대말인 것이죠. 그럼 '위우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마찬가지로 '절교'의 반대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친구로 삼겠다는 뜻이니, '속세랑은 친구 안하고, 자연이랑 친구할래!'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백운', '위우'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이 책에서 가르쳐드릴 올바른 독해 태도가 있다면 앞의 내용으로부터 그 뜻을 자연스럽게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의 내용도 계속 보시죠. 자연 속에서 시름 없이 늘어가고 있다니까, 자연에서의 삶에 나름대로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의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중의 무한지락'에서 '이 중'은 자연 속을 말하는 것으로 독해할 수 있고, '무한지락'은 무한한 즐거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고전시가에서 '락'이 들어간 단어는 '즐거움' 정도로 해석합니다). 근데 '현사할까봐 두렵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현사롭다'는 뒤에서 정리할 필수 어휘로, '야단스럽다' 정도의 뜻을 지닙니다. 하지만 '현사롭다'의 뜻을 알아도 '현스홀가 두려워라'의 뜻을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정확한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야단스럽게 떠들까봐 두렵다'로 해석하는 것이지만, 처음 보는 작품을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해석을 안하면 됩니다.** 어차피 모두가 몰라요. 평가원도 저런 해석 하나하나를 문제에서 묻지 않구요. '자연'에서 화자가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뭔가 두려운 요소가 있기는 있다~ 정도로만 해석해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출제되더라도, 'P.I.R.A.M 생각의 전개'에서 가르쳐드리는 '허용 가능성'의 틀로 선지를 판단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속세와 관련된 어휘

	현대어
흥진	붉은 먼지. 속세를 이르는 말.
공명	이름을 널리 떨침. 속세의 가치 중 하나.
부귀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음.

임금과 관련된 어휘

	현대어
역군은	역시 임금의 은혜
성은	임금의 은혜
피미일인 / 미인	아름다운 사람. 고전시가에서 미인이라 하면 보통 임금을 말함.
연군지정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해, 달, 별	태양이나 달빛은 임금, 또는 임금의 정치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음.

특히 '자연/속세/임금'과 관련된 어휘는 작품 속에서 만났을 때 각각 '자연/속세/임금'으로 치환해서 읽을 수 있도록 자주 보며 익숙해집시다. 고전시가의 핵심은 '단순화'예요! 단순하게 읽을 수 있을 때, 고전시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계속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각 작품에 대한 해설에서 주요 어휘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때 외워두는 게 좋은 필수 어휘들은 * 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 표시가 있는 단어들은 현대에도 사용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 표시가 있는 어휘들은 확실하게 암기해주세요.

추미러 : 치밀어.

천만겁 : 아주 오랜 시간.

가트니(갸트니) : 같은 것이.

개심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 개심대에 다시 올라가 중향성을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녑녀(歷歷)히 혀여 하니
→ 만이천봉을 또렷하게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쳐 있고 곳마다 서린 기운
→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 맑거든 깨끗하구나 말지 깨끗하거든 맑지 말지

더 기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 저 기운을 흠어 내어 인걸을 만들고 싶구나

‘개심대’에서 봉우리들을 보면서, 그 봉우리들에 맺혀 있는 기운을 보고 감탄합니다. ‘맑거든 조티 마나~’ 부분은 앞에 나온 ‘날거 든 뛰디 마나~’랑 형식적으로 유사하네요.

그 봉우리에 있는 기운으로 ‘인걸’을 만들겠다는데, 이는 앞에 나온 ‘~급당유 풍치를 고터 아니 불 게이고’처럼 ‘**선정포부**’를 드러 내는 부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관리로서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자연에 대한 감상이 나랏일에 대한 생 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녀녀히(역력히)** : 분명히.

***조타** : 깨끗하다, 맑다.

****인걸** : 뛰어난 인재.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 모습도 끝이 없고 자세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 천지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되었건만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 이제 와 보게 되니 뜻이 있기는 있구나.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봉우리들을 감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양과 자세가 다양하답니다. 이걸 앞에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의 표현은, ‘이런 산의 모습이 천지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별 뜻 없이) 그냥 생긴 것이겠지만~’ 정도의 의미이고, 이어지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에서는 ‘아, 그래도 막상 와서 보니까 뭔가 뜻을 가지고 만든 것 같구나’라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누가 뜻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까요? 당연히 조화옹(조물주)이겠죠.

이렇게 읽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선 그냥 '자연 좋아'로 읽어내시면 됩니다. 고전시가의 핵심은 단순화이니
까요!

형용 : 모습.

테세(체세) : 자세.

*유정 : 뜻이 있음.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 본 이가 그 누구신가?

⇒ 두 가지 해석 가능성

① 아무도 저렇게 높은 곳은 못 가봤을 거야.

② 저렇게 높은 곳(높은 경지)에 선 사람은 누구일까?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늬야 뉘뉘던고

→ 동산과 태산 어느 것이 높았던가?

노국(魯國) 조분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 었씨 허야 적닷 말고

→ 넓고도 넓은 천하가 어찌하여 작다는 말인가?

어와 더 디위를 어이허면 알 거이고

→ 아아 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가?

오르디 못허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것이 이상할까?

여기도 사실 고사를 모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2015학년도 수능 B형에 출제되었을 때는 『맹자』의 구절을 같이 주어
고사를 간접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공자는 동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노나라가 작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빌딩에서 아래를 볼 때, 사
람들이나 건물들이 작아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공자도 느낀 겁니다. 그러다 동산보다 높은 '태산'에 올라가서는 '천하가 작구나'라
고 말했답니다. 속세의 것들이 작아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자가 큰 깨달음과 안목을 지녔다는 얘기였겠죠.

여기서 정철은 공자의 고사를 떠올리면서, '노나라도 커 보이는데, 천하가 작다고???'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굽
어보는 '더 디위(공자의 경지)'에 새삼 감탄하는 장면이죠. 이후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내려가지 뭐~'라고 말하는데, 이는 '비로봉
상상두'를 못 올라가니까 밑으로 내려가자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공자의 지위'에 어차피 못 다다르니까 그런 경지까지 가는 것은
포기하자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처럼 고사를 알고 있지 않은 경우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는 "비로봉'에 오르
는 행위의 의미를 성인의 체험에 빗대어 생각하고 있다."라는 선지를 맞는 선지로 처리하는 식으로 출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동별곡 정도의 필수 고전시가의 경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출제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죠. 필수 고전시가
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어늬야 : 어느 것이.

*고이허다 : 괴이하다, 이상하다.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 원통골 가는(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 그 앞에 너러바위가 화룡소가 되었구나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의 흘러 내어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 밤낮으로 흘러 내어 넓은 바다에 이어졌으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런느냐
→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삼일우를 내리려 하느냐?

음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어스라
→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려무나.

* 음애에 이온 풀: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

‘화룡소’는 연못인데, 그곳에 늙은 용이 있습니다. 용은 전설 속에서 바람과 구름을 얻어서 비를 내리는 존재인데, 이 역시도 ‘**선정포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애에 이온 풀’은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노룡’은 자신을, ‘풍운’은 좋은 정치를 할 기회를, ‘삼일우’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는 것입니다. 만약 수능에 이런 상징을 묻는 선지가 나온다면, 문제의 구성 또는 제시문, <보기>에서 충분한 근거를 줄 거예요!

너러바회(너러바위) : 넓고 평평한 바위.

노룡 : 늙은 용.

*창해 : 넓은 바다.

*삼일우 : 많이 오는 비. 백성에게 도움이 되기에 ‘좋은 정치’를 의미하기도 함.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어
→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외나모 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 외나무 썩은 다리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애 세여 두고
→ 천심절벽을 공중에 세워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어
→ 은하수 큰 굽이를 마디마디 베어 내어

실가티 풀터 이셔 베가티 거러시니
→ 실같이 풀어서 베같이 걸었으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 도경 열두 굽이가 내가 보기에는 여럿이라.

이적선 이제 이서 고타 의논하게 되면

→ 이적선(이백)이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 할 것이다.

화자가 '불정대'에 올라서 경치를 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비유고, 무엇에 비유하는지 파악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은하수'의 일부를 베어 낸 것 같으면서, '베'처럼 걸려 있습니다. 조금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폭포'를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사실 몰라도 문제 푸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경(그림으로 된 지도)'에는 분명 폭포가 열두 굽이가 그려져 있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보다 많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또 유명한 사람 언급 안 해주면 서운하겠죠?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이백을 들어 자기가 보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이백과 여산은 앞으로 다른 시에서도 지겹게 나올 거예요). 이백은 「망여산폭포」라는 작품에서 여산에 있는 폭포의 아름다움을 예찬했는데, 만약 이백이 살아 돌아와서 자기가 보는 풍경을 보면 '여기가 더 나은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폭포를 은하수에 비유하는 것도 「망여산폭포」에서 이백이 썼던 표현이에요. 이처럼 고전시가의 표현은 여기저기서 반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너머 디어 : 넘어 내려가.

천심절벽 : 매우 높은 절벽.

플터 : 펼쳐.

도경 : 그림으로 그린 경치나 모양. 그림 지도.

**도곤 : ~보다.

산중을 미양 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 산중을 매양 보랴? 동해로 가자구나.

남여(籃輿) 완보(緩步)하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하니

→ 남여를 타고 천천히 걸어 산영루에 오르니

영롱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윈(怨)하느 듯

→ 영롱하게 빛나는 맑은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는 새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앞 부분이 산에 가서 유람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산만 매일 가? 바다 한번 가자!'하고 동해로 가는 얘기입니다. 정철도 이때는 벼슬아치니까, 가마를 타고 여유롭게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롱벽계(시냇물)'와 '수성제조(새)'가 자기를 원망한다는데, 왜 원망할까요? 시냇물과 새는 모두 산에 있는 자연물들인데, 화자가 지금 자기들을 보러 안 오고 바다로 가니까 화자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작품이에요.

**미양(매양) : 매 때마다, 항상.

남여(籃輿) :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

**완보 : 천천히 걸음.

*벽계 : 맑은 시냇물. (자연)

수성제조 : 여러 소리로 우는 새.

정기(旌旗)를 펼치니 오색(五色)이 넘노는 듯
→ 갖가지 깃발을 펼치니 오색이 넘나드는 듯.

고각(鼓角)을 섰부니 희운(海雲)이 다 걷는 듯
→ 북과 나발을 섞어 부니 바다의 구름이 다 걷히는 듯.

명사(鳴沙) 길 니근 돌이 취선(醉仙)을 빗기 시러
→ 모래 길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비스듬히 실어

바다홀 것티 두고 히당화(海棠花)로 드러가니
→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가 핀 곳으로 들어가니

백구(白鷗)야 늑디 마라 네 버딘 줄 었디 아는
→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 알았느냐?

화자의 무리가 깃발도 펼치고, 북과 나발도 불면서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이 두 개 있는데, 찾으셨나요??

네, ‘취선’과 ‘네 벗(갈매기의 친구)’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를 취한 신선에 비유하기도 하고, 갈매기가 나는 것을 보며 ‘네 친구인 내가 온 걸 알았구나!’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태도, 자연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끼는 ‘물아일체’를 보여주고 있네요.

정기(정기) : 여러 깃발.

고각 : 북과 나발.

희운 : 바다의 구름(안개).

명사(鳴沙) : 밟으면 특이한 소리가 나는 모래.

*니근 : 익숙한.

*취선 : 취한 신선.

*백구 : 갈매기.

금난굴(金蘭窟) 도라 드러 총석명(叢石亭) 올라하니
→ 금난굴 돌아 들어 총석정에 올라가니

백옥누(白玉樓) 남은 기둥 다만 네히 서 잇고야
→ 백옥루의 남은 기둥 다만 넷이 서 있구나.

공슈(工僮)의 성녕인가 귀부(鬼斧)로 다드 문가
→ 공수의 솜씨인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뜰야 육면(六面)은 므어술 상(象)툃던고
→ 구태여 육면(인 것)은 무엇을 본뻘던가?